

情報化사회 연「컴퓨터 代父」

「88競技 시스템」개발, 外國도 감탄

成琦秀(시스템공학연구위원)
매일 경제 92.9.15. 『人物탐구』

「10억의 손오공을 마치 하인 부리듯 하는 道士」 「정보화의 傳道師」

한국 컴퓨터계의 산 역사이자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성기수 박사(58)에게 따라다니는 수석어다.

지난 2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 시스템공학연구 소장직을 후진에 물려주고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성기수박사의 삶은 반전을 거듭하는 한편의 드라마를 연상케 하고 있다.

일제 때인 34년 慶北 星州군 草田면의 30여호 되는 농촌에서 6남매중 다섯번째로 태어난 성기수 박사는 동리에서 몸집이 제일 작고 콩서리, 밀서리, 소싸움 등을 즐기는 평범한 소년이었다.

집에서 40리나 떨어진 왜관 국민학교 졸업식에서 전교 수석에게 주는 도지사상을 탈때 까지 도 소년은 그저 행복했다.

學生운동 휘말려

그러나 大邱 사대부중에 입학, 학생운동에 휘말리면서 그의 삶은 좌절과 방황의 청년기를 맞는다.

부중 2학년 때 선배들의 권유로 좌익학생운동의 전위 행동대원 노릇을 했는데 이는 결국 그를 퇴학과 함께 6.25때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는 빌미가 된다. 바로 윗형이 의용군에 끌려나가 행방불명이 되고 강압에 의해 마을 인민위원장직을 맡았던 아버지는 수복이 되자 부역자로 몰려 처형된다. 재산이 몰수되고 흉년까지 겹쳐 끼니를 이을 수 없는 빈궁으로 하루 아침에

전락하게 된 셈이다. 그는 지금도 그때를 60평생 가장 후회스러웠던 때라고 술회한다.

먹거리를 위해 무작정 상경, 미군부대 하우스보이, 국수공장 직공 등을 하다 과로로 밥 한술 넘기지 못하는 심한 위장병만 얻어 귀향한다.

처음 호구지책으로 시작한 양계장 사업이 닭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이어 수박구덩이 8백개를 파 시작한 수박사업은 도둑들이 밤에 수박밭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도중하차 했다. 마지막으로 손댄 양돈사업은 새끼 밴 돼지를 송아지가 받아 버려 어미돼지가 죽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갔다.

대학 진학 길트어

사업의 연속된 실패로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그에게 인생의 전기가 마련된 것은 53년 12월 대입검정고시 합격과 54년 서울대 화학공학과 입학이었다.

친척들의 도움으로 겨우 등록을 마친 그는 미아리 공동묘지 근처에 낡은 방을 얻어 소금에 밥을 짬어 먹어 가며 꿈에 부푼 대학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나 당시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한국에 당장 필요한 생필품인 비누, 치약 등을 대량 생산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택한 화학공학은 그의 적성에 맞지 않았다.

대학 2학년 때 전공을 항공공학으로 바꾸고 58년 꿈에 그리던 대학졸업장을 손에 쥐게 된다.

대학졸업과 함께 공군장교 후보생 모집에 응시했는데 체중이 미달돼 짜장면 곱배기 두그릇에 물 서너사발을 들이켜 배를 통통 불린 후 겨우 50kg을 채워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군대생활은 그가 생전 처음으로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유학가 인생의 행로를 크게 바꿔 놓는 계기가 된다. 공군소위가 되어 공군사관학교 수부항공역학 교관으로 근무할 때 국방학 기술연구소에서 제작중인 로켓의 탄도를 계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空軍소위 임관

두달간에 걸친 끈질긴 연구끝에 로켓탄도 공식을 개발한 공군소위 성기수는 59년 여름 故

李承晩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5기의 로켓 발사식에서 이 공식이 적용되는 기쁨을 만끽한다.

밀저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美國의 저명한 항공우주 과학자인 항공우주 과학저널에 이 공식을 보내보았다. 「대기중을 비행하는 편·안정된 로켓의 탄도 계산용 조사 공식」이라는 논제로 보낸 이 탄도 공식은 60년 4월호의 항공우주 과학 저널에 실리는 기적을 일궈낸다. 과학 미개국인 코리아에서 보내진 이 논문은 당시 미국 과학계를 흥분시켰다.

이 논문은 결국 하버드 대학원과 브라운 대학원에서 학비전액을 대겠다는 장학금 증서가 달린 입학 허가서를 갖다줌으로써 청년 장교 성기수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꿔 놓는 계기가 된다.

고향후배인 장태엽씨와 아세아 재단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길에 나선 그는 부역자 집안이라는 사실과 진행성 폐결핵의 진단이 나와 또한번 좌절을 맛보게 된다. 前 공군사관학교 교장이던 申尙澈 장군의 도움과 위조된 X레이사진을 하버드에 보내는 우여곡절 끝에 위기를 넘긴다.

61년 천신만고 끝에 보스톤의 캠브리지에 있는 하버드 대학원 응용물리 공학부에서 유학생 활이 시작됐다. 입고 있는 옷이 한국 공군복이어서 옷을 사러 갔는데 몸집이 너무 작아 맞는 옷이 없어 이동복 코너를 뒤지기도 했다.

美 유학으로 새 삶

유학 1년만에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5·16군사혁명이 일어나 귀국 명령이 떨어졌다. 박사학위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탄원서도 내고 아시아재단 등에 매달린 끝에 귀국을 겨우 연기할 수 있었다. 다시 죽을 힘을 다해 당시로서는 미개척분야인 자기유체 역할을 주제로 논문을 썼다. 그러나 이 논문은 놀랍게도 박사학위 심사위원회를 통과, 그를 박사가 되게 했다.

美·蘇의 인공위성 개발 경쟁이 치열했던 때라 그가 택한 우주선의 비행역학 분야는 미국에서 매우 촉망받고 있는 학문이었다. 1년만에 박사학위를 딴 것이다. 이는 하버드 3백여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지금까지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다. 중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공민학교 교사자리를 퇴짜맞은 그가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에서 개교 이래 최단기 박사학위 취득의 기록을 세운 것이다.

박사학위 논문이 쉽게 공학적으로 응용될 수 있도록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 전동 탁상 계산기를 며칠째 두드렸다. 당시 옆방 동료가 더 좋은 기계가 있다고 알려줘 成 박사는 컴퓨터와 역사적인 첫 대면을 하게 된다. 그는 생전 처음 접한 IBM 7090 컴퓨터의 수천 수백배에 이르는 작업능률에 경탄하면서 컴퓨터의 세계에 빠져 들게 된다. 그는 응용분야가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컴퓨터를 한국에 우선 보급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하버드 대학이나 美항공회사의 잔류유혹을 뿌리치고 귀국을 서두른다.

공학박사 청년 성기수는 귀국후 조국에 정보산업의 총아인 컴퓨터를 안겨야겠다는 사명감으로 현재까지 30년 동안 컴퓨터의 연구·보급에 일관케 된다.

잔류 제의 뿌리쳐

그를 보면 자그마한 소년같지만 거인대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는 10억명의 부하나 마찬가지로 슈퍼컴퓨터를 마치 하인부리듯 한다. 그는 67년 KIST에 국내 처음으로 전자계산 연구실을 창설한다.

이후 컴퓨터 공개 프로그래밍 강좌, 한글 입출력 시스템, 고입 연합고사 자동채점, 추첨, 증권 전산화 시스템, 병원관리 종합 시스템, 구조물 평면해석 및 설계시스템 등이 그의 손을 거쳐 잇따라 개발되었다. 그의 정보화에 대한 열정은 88년 올림픽 경기 정보시스템의 개발로 절정을 맞는다. 한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비웃었던 외국의 전문가들은 각종 전자계측 장비와 경기장의 컴퓨터를 우리식으로 시스템화한 데에 깜짝 놀란다.

외국 전문가들은 이를 88년 올림픽의 場外 금메달이라고 불렀고 한국에 성기수라는 인물이 있기에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1만여명 길러내

「정보화의 傳道師」인 그가 30년 동안 컴퓨터 및 정보화 연구에 전념하면서 길러낸 인력만도 1만명이 넘는다. 특히 시스템공학연구소를 거친 후학들도 6백명이 넘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의 정보사업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있다.

安文錫 고려대 교수, 金鎭衡 KAIST 교수, 具志會 가인시스템 사장, 吳吉祿 전자통신연구

소 컴퓨터기술 연구단장, 李基式 대우증권 상무, 李龍兌 삼보컴퓨터 회장 등이 시스템 공학연구소 출신들이다.

또 李潤基 엘렉스컴퓨터 사장, 全洲植 서울대 교수, 黃圭鞭 한국여행정보 사장 등도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으며 부설소프트웨어 교육 이수자도 1만여명에 이른다.

「컴퓨터피아를 열어가고 있는 한국 컴퓨터계의 대부」인 그는 81년 시스템공학연구 소장이 돼 88년 국내 첫도입한 세계 최대급의 초대형 컴퓨터인 슈퍼컴퓨터 크레이를 마치 장난감 다루듯 하는데 그의 이런 모습에서 한국 컴퓨터피아시대의 장래를 그려볼 수 있게 한다.

슬하에 1남1녀를 둔 成 박사는 딸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美國에서 박사과정에 있고 아들이 대학 4년생으로 전산학을 전공, 아버지의 뒤를 잇고 있다.